# '새싹 포교' 문화프로 빈약

## DDR·테크노댄스만 열기
## 백일장·찬불가 마당 썰렁
## 미술·국악 등 응용 절실

올 한해 교계의 청소년 행사를 보면 신세대 눈높이에 맞춘 댄스 행사들이 많이 열려 호응을 얻은 반면 백일장과 찬불가 부르기 등 문화 행사들이 저조해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이 다양화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한해 열렸던 교계의 청소년 프로그램중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은 D.D.R댄스와 테크노댄스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이 춤들이 공연되는 곳이면 언제나 객석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로 붐빈다. 기존의 찬불가 부르기 대회, 백일장, 봉사활동 등의 규격화된 청소년 행사들에 비해 참여 인원수에 있어서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다. 공연장의 열기 또한 대단하다. 무대에서 공연되는 춤을 함께 따라하며 열광하는 청소년 관객들을 바라보면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는 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청소년 포교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는게 일선 포교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이를 증명하는 좋은 사례들은 교계의 청소년 단체나 종립학교 등에서 올 한해 열렸던 청소년 대상 포교 행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서울지부가 5월 7일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청소년댄스 경연대회'에는 5백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다. 객석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댄스그룹을 응원하기 위해 '플랭카드'를 들고 일어나 춤을 추는 등 인기 연예인의 공연장을 방불케 했다.

같은날 저녁 탑골공원 앞에서 한마음 중고등부 학생회가 마련한 '보컬댄스 음악 파티'에서도 3백여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해 열띤 호응을 받았다. 역시 9월 목동청소년회관에서 열린 'D.D.R 춤잔치 경연대회'에서는 신청자가 쇄도해 접수순으로 선별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와같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댄스 행사 바람은 청소년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포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몫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교계의 모 종립학교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때 '백일장'과 '찬불가 부르기' 대회를 개최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해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친 반면, '테크노댄스 경연대회'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4배의 신청자가 몰려 예심을 나눠 치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런 추세에 대해 교계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높은 참여도와 호응도를 겨냥한 포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음악적 특성상 건전한 정서함양에 해가 될 우려도 있어 내년에는 또다른 행사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대해 홍자운 디지털 열린 상담실장은 "단순히 청소년들의 기호에 프로그램 성격을 맞춘다고 댄스 프로그램 일색으로 흐르는 것은 자칫 놀이 위주 문화에만 빠질 위험이 있다"며 "청소년 포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악, 미술, 컴퓨터 등 다양한 장르를 신세대 감각에 맞게 각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올 한해 청소년들의 기호를 겨냥한 테크노 댄스, D.D.R 등의 행사가 많이 열려 청소년들의 인기를 끌었다. 사진은 목동청소년 수련관 주최 신세대 가요제 장면.

## 주부 신행담

### 태양은 다시 떠오르고 ③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불교는 점이나 보는 미신이라고 오해를 하며 사찰에 가기를 싫어했던 남편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파산 직전까지 갔던 우리 가정이 나의 새벽 기도 때문에 정상을 되찾은 가피를 옆에서 지켜보고는 '미신이니, 점술이니' 하는 불교를 비하하는 소리를 더이상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법당에서 108배를 할때면 옆에서서 최소한 삼배 정도는 올리며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다.

남편도 이젠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나도 식당일이 제법 익숙해져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불교를 열심히 믿어 보라고 포교까지 하고 다닌다. 남편도 정신적으로 많은 안정을 되찾은 듯 했다. 예전 같으면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다반사였는데 요즘은 술먹고 오는 날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자신이 조절해서 적당하게 마셨다. 또 아무리 술을 마셔서 취기가 있어도 〈금강경〉을 꼭 독송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과 함께 새벽기도도 나란히 나가고 밤에는 침대 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금강경〉 독송도 하니까 부부금슬도 자연히 좋아졌다.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나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부부가 같이 절도 하고 독송도 함께 하니 하나가 된 느낌처럼 행복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 이의에도 가정의 화목 등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게 느껴졌다.

요즘은 우리 분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교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 예전에 내가 일하던 식당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내게 했던 것처럼 말이다. 음식을 팔아 돈을 버는 보람보다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나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일이 더 즐겁다.

우리 가정은 언제까지나 부처님 정법의 그늘에서 실천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피를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발원한다. 영원한 도반이자 남편인 김신인 거사에게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끝〉

이민자 〈충청북도 제천시 천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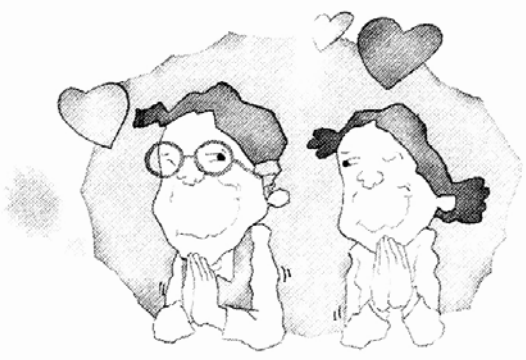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 남편도 새벽기도…금슬 좋아져

###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⑩

■ 온수에 손 담그기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겨울만 되면 우리네 집 안방을 차지했던 것이 있다. '화로'다. 이 말은 영어로 옮길 때도 아주 고민이 된다고 한다. '히터'라고 해도 마뜩치 않고, '스토브'라고 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 속에는 화로라는 말이 주는 정서적 울림같은 게 없다.

모닥불은 또 어떤가. 한여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종류의 불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에는 공통점이 있다. 손부터 내밀고 본다는 것이다. 이처럼 손은 온도에 민감할 뿐 아니라 내장기관의 활동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손을 통한 건강 요법은 가장 쉽고도 요긴하다. 그 중 하나가 '뜨거운 물에 손 담그기'다.

'뜨거운 물에 손 담그기'는 냉증이나 천식 그리고 만성피로 다스리기에 유용한 수단이다. 갑작스런 천식의 경우 조금 뜨거운 물에 손발을 담근다. 폐의 울혈을 손과 발로 유도함으로써 발작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3분 정도 담근 후 붉어지는 정도를 보면서 변화가 없는 쪽은 계속해서 담그는데, 어깨나 이마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하면 그친다.

**뜨거운 물에 손 담그면**

**냉증 천식 만성피로에 좋아**

만성 피로는 만병의 근원이다. 그때 그때 적절히 피로를 풀어 줄 수 없을 정도로 자율신경이 제 구실을 못하면 단순 피로가 만성병으로 바뀌는 것이다.

천식 발작시 응급처치 수단으로건 하루하루의 피로 회복 목적이든, 물의 온도와 담그는 시간은 손(발)이 붉어지는 정도를 고려해서 조절하면 된다.

## 랩·댄스풍 찬불가 불러보세요

### 풍경소리 찬불동요 11집 발표

찬불동요 보급 운동을 벌이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제11집을 발표했다.

이번 11집에는 '절에 가는길' '하얀눈이 오네요' '겨울나무' '눈사람' 등 겨울을 소재로 한 가사에 경쾌한 리듬의 곡을 붙여 동심을 담아낸 13곡이 수록돼 있다.

특히 11집에서는 어린이 찬불가만을 주로 음반에 담아내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발돋움해 청소년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찬불가 들도 여러곡 수록돼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또 동요에서 랩, 댄스음악 등 장르의 폭을 다양하게 넓혔고 구연동화 '만두와 지장보살'을 삽입해 풍부한 들을거리를 제공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씨는 "11집부터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및 청소년 포교를 위한 일념으로 더욱 발전적인 찬불동요 음반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02)717-6985

김주일 기자

### 청소년단신

#### 겨울방학 영어교리 강좌

연등국제불교회관은 26일부터 내년 2월3일까지 '겨울방학 청소년 영어 교리 강좌'를 연다.

영어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좌에서는 불교 기초교리를 원서로 해독하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주 2회에 걸쳐 결쳐지는 수업은 간단한 시험을 거쳐 초·중·고 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22일까지다. (02)735-5347

#### 만화·영화·댄스 특강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8일부터 청소년 방학 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NIE논술 △만화 그리기 △영화 제작 △스포츠댄스 등 다채로운 내용의 강좌가 열린다. 또 어린이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동요부르기, 미술그리기, 뮤지컬 영어배우기 등의 강좌도 준비돼 있다. (051)868-0750

#### 참선 정신건강 훈련

하동 청소년수련원은 22일까지 경남지역 관내 중고등학교 수험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특별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시험후 예상되는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참선 정진 강좌와 명상훈련 등이 펼쳐진다. (055)883-5393


불교수행의 길잡이 ①

절을 氣차게 잘하는법

헐떡이지 않고 절대 숨차지 않으며 3천배를 하여도 지치지 않는 절 수행 秘法書 -

회/제/의/신/간

청견 스님 지음
값 6,500원

하루에 3천배씩 3년간 목숨을 담보한 절(拜) 수행결사 끝에 각고의 노력으로 탄생된 比丘 청견스님의 절 수행 秘法과 생생한 수행 체험담이 담긴 이 책은 절을 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과학적으로 行할 수 있는 절 수행 지침서로써, 불자들의 가슴에 신선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 할 것입니다.

500만배의 절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 수행에 염불 대입법 / 온몸에서 빠져나간 약물 / 90세에 다시 찾은 젊음 / 절 수행으로 업장 소멸 / 카톨릭 신자의 절 수행 / 절 수행으로 당뇨병을 극복하다 외

붓다의 마을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56 象 갤러리 405호
전화 : (02)722-0292 / 722-0293(팩스 겸용)
E-mail : BDland@chollian.net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 절 수련 문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리산 참선캠프 법왕정사 수행원
☎ (031)771-7745 / 6736

■ 불교대학,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물없이 씹어 먹을 수 있는 최고급
자연식 식사 / 生 - 선식

火食百食而不 ■ ·生-禪食
(화식백번을 먹는것이
생선식 한번 먹는 것 보다 못하다)

'생' 선식 하나로

비만 피부 체질 피로 기운 면역력 혈액순환
쏙쏙 재생 싹싹 회복 쑥쑥 상승 원활

건강 O.K

특허상표 출원번호 2000-40253
특허상호 출원번호 2000-21890

옛비법의 전통선식 전문 상 기 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빌딩
전 화 080-737-0040
소비자상담실 02-723-4463-4

진여암 메주를
판매합니다

2000년 3월 조상들의 전통을 방법으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식단을 위하여 공기 맑고 물 맑은 속리산 고랭지 해발 약 500미터에 위치한 암자 진여암에서 지하 140자 암반수를 퍼올려 순수 국내산 우리콩을 푹 삶아 4주간 숙성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서구화 되어가는 먹거리로 대장암이나 직장암 등 각종 성인병이 많으나 우리의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여러 사람의 건강을 지키고자 우리고유의 전통 가마솥에 삶아 발효시켜 만든 메주를 보급합니다. 또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 구워 만든 죽염으로 죽염된장, 죽염간장, 죽염마늘고추장을 만들었으니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메 주 : 반말, 1말
죽염된장 : 3Kg
죽염간장 : 3L
죽염마늘고추장 : 3Kg

▶ 죽염마늘고추장은 먹을 때 맵긴하나 위가 약하신 분도 마음껏 드셔도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고 속이 편안합니다.

▶ 주문 및 문의전화
속리산 진여암 043-542-2239
서 울 지장사 02-885-1558
홈페이지 WWW.ggachimaul.or.kr